

06 역 리 포 항

2011. 반상회보
www.ipohang.org
발간등록 75-502000-00010-08





06 2011. 반상회보 www.ipohang.org 발간등록 75-502000-0010-08

여 리 포 항

한여름 더위, 포항 해변에서 날려요

꿈과 희망의 영일만 행복시대 연대!

당신의 히즈빈스 2호점

포토뉴스 친환경 건축물 해도동주민센터

연꽃을 보러 가는 저녁

서림지*에 도착한 건
연꽃이 드문드문 켜진 불빛 같다고
누군가 말했다 때였다 기다렸다는 듯
사선으로 쏟아지는 빗방울들 사실은
연잎의 잎맥 사이로 달려들었으나

젖지 않았으므로 더욱 붉어졌으므로 저마다
연꽃 사이로 흘렀다고만 생 각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나 서어나무
긴 이파리 하나가 부석사 무량수전 뒤 큰 산을 안 듯

연꽃 아닌 것들은
밀바닥에서 마디를 짓고 뿌리를 뺏는다
꽃들은 조금씩 제 몸속으로 사라지고
선 잎은 비스듬히 몸을 뉘어 스스로 어두워지는데

바람이 허공의 찰진 가슴으로 스며드는
순간, 물속에서 가만히 줄기를 안는 흙의 두 팔
꽃의 환한 부재
한 생이 피었다 스러지는 시간의 무량을 다만
연잎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 북구 흥해읍 옥성리에 있는 2만여 평의 저수지이며 연꽃 자생지.
5백여 년 전 '동국여지승람' 에도 나오는 곳.



•• 09



•• 10



•• 13



•• 14

06 | 2011 CONTENTS

문화&교양 | 듀얼이
이미지전 등

- 04 특집 I | 행복도시를 향한 민선5기 1년
- 08 특집 II | 포항은 지금
- 11 포토뉴스 | 친환경 건축물 해도동주민센터
- 12 꿈과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 장애인 커피 전문점
- 14 문화&교양 | 듀얼이미지전 등
- 16 시정브리핑 | 주요 시정 소식
- 18 포항포커스 | 지역 해수욕장 개장
- 19 의정브리핑 | 주요 의정 소식
- 20 포항레이더 | 시정 및 유관기관 정보·알림
- 22 포항사랑 | 포항시 시민상 수상자 강해중 씨 외
- 23 갤러리 | 미래의 기억 Memory of the Future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해수욕장 30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 시설, 안전관리, 환경, 수질, 경관 등
19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2009년부터 2년 연속
우수해수욕장 20곳에 선정된 월포해수욕장.



표지사진 · 안성용
손글씨 · 이현정

발행처 | 포항시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편집인 | 홍보담당관 이정식
편집담당 | 홍보담당장숙경, 박주영
담당주소 | 790-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1001) 054)270-2233
발행일 | 2011년 6월 23일(통권 제94호)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054)275-0558
인쇄 | 성광인쇄 054)283-2162
홈페이지 | www.ipohang.org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장을 통한 더⁺ 나은 삶으로

꿈과 희망의 영일만 행복시대 연다!

행복시정(Happy 5)으로 최대 인구 나날이 갱신 ... 52만 초읽기 돌입

오늘날 도시 인구의 증감은 그 도시가 처한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인구의 증감은 환경, 문화, 복지, 교육, 일자리 등 그 도시가 지닌 총체적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포항은 지금 최대 인구를 나날이 갱신하고 있다. 금야야 52만 인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물론 상대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는 타 지역 주민들이 포항을 살 만한 도시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포항의 더 많은 성장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기치로 탄생한 민선5기(박승호 포항시장)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민선4기 동안 미래성장 동력과 글로벌 도시의 기반이 될 SOC, 즉 〈하이 파이브 프로젝트〉(Hi Five Project)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지만 민선5기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환경·복지·문화·교육·일자리 등 이른바 〈해피 파이브 프로젝트〉(Happy Five Project)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민선5기는 시정의 핵심가치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지난 1년 행복도시 조성에 나섰다.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난다

포항의 대표적 생태환경 프로젝트인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7월부터 지장물 철거를 시작한다. 수로가 복원되고 수변유원지가 조성되면 동빈내항은 한국의 나폴리로 거듭나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는 것은 물론 도심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첫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는 2014년까지 남·북구를 잇는 85개 노선 180Km에 달하는 간선자전거 도로망은 기존 58개 노선 97Km와 함께 지역 생태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맥이 될 것이다. 여기에 2.3Km(우현동 유투저장고~신흥동 안포건널목)의 폐철도부지가 도시 숲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34.8Km의 도심녹도와 벽면녹화는 기존 녹도와 함께 도심의 생명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 경관이 산만했던 동빈부두는 테마가 있는 친수공간으로 정비되었고, 곡강천과 냉천은 가까운 장래에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 및 유수지 일대를 녹색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일 증명 생태숲길이 올해 내로 완공되는 등 포항은 생태환경도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촘촘하게 따뜻한 선진복지도시를 실현한다

내년이면 남구 대도동 뱃머리마을 일원이 포항의 대표적 문화복지 인프라로 거듭난다. 지난해에는 외국어어린이집과 영유아프라자에 이어 뱃머리마을문화관이, 지난 5월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착공되어 현재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불리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는 〈1·2·3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6.25참전 유공자 명예선양비 및 연재근 영웅 군상, 포항함 등을 설치하여 호국의식 함양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획기적으로 선양했다. 여기에 사랑나눔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지원 푸드마켓



- ① 미래 글로벌 포항 인재로 성장할 포항어린이들이 포항환경학교 환경체험 중 행복대장정에 나선 박승호 시장과 만남 모습
- ② 7월부터 건물 등 철거에 들어가는 동빈내항 복원사업 마스터플랜
- ③ 각종 지장물 등으로 주변 경관이 산만했던 동빈부두 거리가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말끔하게 정비된 동빈부두
- ④ 포항의 대표적 문화복지 인프라로 남구 대도동에 내년 준공되는 뱃머리마을문화관 조감도



운영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내년 말 준공되는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올 초 개소한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다문화 자원봉사단 결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또 공공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에도 포항시는 힘을 쏟고 있다.

매력 있는 문화·관광·스포츠도시로 조성한다

포항시는 시민들이 문화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MOU를 체결했는가 하면 1기업 1문화예술단체가 자매결연하는 문화메세나운동,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등 문화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포항시립중앙아트홀 개관, 21개 작은도서관 구축, 내년에 준공되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문화비전2020 및 포항경관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한다. 여기에 새마을 발상지인 기계면 문성리에 새마을운동체험공원을 조성하고,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관광자원화, 동해안 탐방로 조성, 연오랑세오녀를 테마로 하는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 고향마을에 덕실관을 개관했고, 하옥계곡에 텐트야영장을 설치하여 관광·휴양명소로 조성했다. 포항의 랜드마크인 포항타워 건립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나섰다.

포항시는 복합남시공원, 월포해수욕장 특화 개발, 어촌체험마을, 해상펜션 건립 등 해양을 테마로 한 특색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매력 있는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아카데미 운영과 내년에 준공되는 다목적체육관과 포항야구장 건립 등으로 스포츠도시로도 포항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5 포항시립교향악단 공연 모습

6 오는 2015년까지 동해면 일대에 조성되는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감도

7 소득3만불시대 해양스포츠 총아가 될 코리아컵요트대회 모습

인재를 양성하는 명품교육도시로 진화한다

포항시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저소득층 우수학생 지원을 위한 3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은 6월 말 현재 263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액의 88%를 달성했으며 올해 안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경비 지원율을 기존

시세의 3%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것을 5% 범위 내로 상향조정, 교육경비 확대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3% 내에 머물고 있는 교육 경비 지원을 앞으로 차츰 늘려 2014년까지 5%로 끌어 올린다.

여기에 1학교 1특기 운영 지원,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 지원, 결혼이민여성 외국어 보조강사 지원, 영어체험학습(영어캠프), 마이스터고 설립, 벽지학교 일류화 추진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외국어 교육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도시로 만든다

포항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전력을 쏟는 것은 물론 포항종합일자리센터 운영, 취업 및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촉진훈련 실시, 전직(재취업)센터 및 취업상담반 운영,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전방위 일자리 창출에 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8개 사업에 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1만519개를 비롯해 장애인일자리 347개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영자금 지원확대, 기업으로 제로화를 위해 기업에로상담관을 위촉하고, 1,717개 업체를 대상으로 123기업사랑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기업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대장정으로 향후 행복도시를 설계한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에 있다. 시정이 추구해야할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행복에 있을 것이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6월 한 달 동안 행복시정의 현장을 둘러보는 <행복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행복시정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년의 행복시정을 구상하기 위한 민생탐방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3년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정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여겨진다.

이렇게 민선5기는 앞으로도 계속 녹색성장을 통한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촘촘하게 따뜻한 선진복지도시, 매력 있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명품교육도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도시 등 행복한 포항을 만드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글로벌 행복도시의 기반을 놓아갈 것으로 보인다.



8



9



10

8 2011년 상반기 취업박람회 모습

9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에서 상항차를 포장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모습

10 민선5기 1년 동안 행복도시 시정에 주력한 박승호 포항시장이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현장을 살피는 모습



더⁺ 많은 성장을 통한 더⁺ 나은 삶으로

꿈과 희망의 영일만 르네상스 연다!

녹색성장을 통해 제2의 영일만 신화를 창조한다

민선47기는 POSCO 설립 이후 40년간 조성된 2,244만㎡(680만평)을 뛰어 넘는 2,259만㎡(684만평)에 달하는 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조성 중에 있고, 3조원 대 기업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영일만 르네상스를 열기 위한 기초 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인구를 증가세로 돌아서게 했고, 포 항이 환동해경제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대양과 대륙으로 뻗어가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6월 8일 흥해읍 이인리 신포항역사 현장에서 KTX 직결운행 시설공사 기공식이 있었다. KTX 포항연결 선 사업은 경부고속철도와 현재 건설 중인 포항~울산 간 동해남부선을 잇는 노선(경주시 건천읍 모량리~흥해읍 이인리 신포항역)으로 오는 201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X 포항연결선이 완공되면 서울~포항 간 소요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단축되어 포항은 그간 철도오지라는 불명예를 씻고 KTX 거점 정차역으로, 철도중심지로 변모하게 된다. 여기에 신포항역 역세권까지 조성되면 이 일대는 포항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포항영일만항 인입철도, 국도대체우회도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포항 기계~안동 간 국도 4차로 확장, 포항~영덕 간 동해고속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망 역시 순조롭게 구축되고 있어 포항이 광역도시로 성장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특히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대교(동해면 임곡리~여남동도 : 대교 3.8km, 해저터널 4.7km)는 동해고속도로에 포함되어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환동해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는 영일만

포항시가 그간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포트세일과 국내외 선사유치로 인해 올해 들어 영일만항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 즉 지난 한 해 7만2,421 TEU를 처리했지만 올해 5월 말 현재 4만6,150 TEU에 이르고 있다. 가히 비약적인 증가세다. 현재 6개 선사 9개 항로 13항차가 운항중이지만 앞으로 러시아와 동남아 항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어 물동량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일만항이 환동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포항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셈이다.

영일만항 배후에는 내년까지 자유무역지역 71만여 m²이 조성되는가 하면 이후 69만 여m²를 추가로 지정·확대 조성한다. 영일만 산업단지(6,33만여m²) 조성도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3월 2일 반산산업단지를 준공한 데 이어 올해 내로 일반산업단지(부품전용단지 33만여 m² 포함)와 3 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4일 반산단지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공되면 영일만항은 그야말로 대구·경북의 해양관문으로, 국제물류 중심항만으로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 1 포항을 철도오지에서 철도중심지로 변모시킬 KTX포항신역사 및 역세권 조감도
- 2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모습
- 3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할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의 미래를 보여주는 조감도



과학벨트 연합캠퍼스 유치 등 과학도시로 재도약

노벨상사관학교로 불리는 독일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를 유치한 포항은 지난 몇 달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에 적극 나섰다. 비록 거점지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탁월한 연구기반을 가진 포항의 과학도시 진면목을 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성과는 물론 1조5000억 원 규모의 포항·울산·대구 연합캠퍼스 및 10개 기초과학연구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 과학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구 효자동 포항가속기연구소 일원에 조성될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0.1 나노급의 세계적인 첨단시설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6.7조원의 생산효과와 4,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홍해읍 제4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83만여㎡)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앞으로 발전용 연료전지·부품소재 기반 구축 등으로 이곳은 한국형 수소빌리지 시범단지로 조성해 나간다. 여기에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남구 대잠동 일원에 포항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2013년에 문을 열 계획이다.

테크노파크2단지외 블루밸리는 미래성장 동력

연일읍 달전·학전리 일원에 조성되는 포항테크노파크2단지(207만여㎡)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포항시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포항테크노밸리PFV(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 협약을 진행 중이다.

구룡포·동해·장기 일원에 조성되는 포항블루밸리(6,20만여㎡)는 산업단지 지정과 토지보상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생산유발 13조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4조100억 원, 고용유발 4만 명에 이르는 포항의 대표적 미래 성장 동력이다.

4 포항을 첨단과학도시로 견인할 포항테크노밸리 전경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방사광가속기

6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국 지능로봇경진대회

7 포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포항블루밸리 조감도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명물

친환경 건축물

해도동 주민센터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의 명물로 탄생한 해도동주민센터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일반적인 주민센터의 이미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해양도시 포항의 이미지에 걸맞은 배를 형상화한 건물의 외형이 돋보이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살린 철구조의 건축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 설치, 친환경 자재사용 및 외부벽면 녹화패널 적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부응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5월 17일 개소한 해도동주민센터는 연면적 1천81㎡, 지상 3층 규모로 신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2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3층에는 대회의실과 예비군 중대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동주민센터는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TPP)의 정착을 위해 현상공모 공고에서부터 작품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시청 테라노바 팀에서 전담했다. 전국에서 응모한 12개 작품을 두고 대학교수와 건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했다.



당신의 히즈빈즈

Hisbeans 2호점

글 | 정차준 사진 | 안성용

당신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2층 히즈빈즈 티 테이블에 앉아 있다. 올해 4월 1일 북구 덕산동 113-12번지에서 오픈한 카페 히즈빈즈 2호점, 이곳에서 당신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한다. 당신은 올해 28세인 히즈빈즈 2호점의 매니저 문형주 씨로부터 어제 오후 3 시경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당신이 히즈빈즈에 도착해 안 사실은 카페 입구 쪽 게시판에 선물 카드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이 카드에는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 석 자가 보이고 이런 문장들이 흘러가고 있다. 'TO. 안성용. HP. 000-0000-0000.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분이예요. 왜냐하면 《열린포항》 6월호에 실을 카페 '히즈빈즈' 2호점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요. 소중한 당신께 카페라떼 콜드 한 잔을 선물할게요. 2011년 6월 14일. FROM 미스터 J.' 히즈빈즈의 메뉴판을 통해 안 사실이지만 카페라떼 콜드 한 잔은 3,300원이다. 사진작가 안성용 씨에게 커피를 선물한 사람은 미스터 J.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카라멜 프라프치노를 선물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일 수도, 그녀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녁 8시 40분. 나는 당신과는 다른 티 테이블에 앉아 유자에이드와 외플을 주문해놓고 그 사람을 상상한다.

그 사람은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1층 전시실에서 열린 '2011 현대한국화 정기전 한국화 묵과 색의 만남전'에 들를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포항시립연극단의 제152회 정기공연이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하나인 《리어왕》이 6월 1일 수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3층 무대에 오르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은 유리창을 통해 포항시의 여섯 갈래 길, 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포항시민의 육거리를 내려다보다가 팸플릿을 훑어보기도 할 것이다. '포항시민을 위한 클래식(오페라) 교

살'이 5월 17일부터 20주 동안 전액 무료로 70명을 선착순 모집한 사실을 접하면서 그 사람은 잠시 당황할 것이다. 할인도 아니고 무료를 놓친 그 사람이다. 공짜를 좋아하는 나머지 자칫 대머리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이다.

노트북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킨다. 누군가가 취재를 하러 온 모양이다. 문형주 씨가 입을 열고 있다. 히즈빈스 2호점 카페 매니저는 저를 포함한 2명입니다. 특히 정신장애인들은 여자 2명, 남자 3명입니다. 이들의 연령은 26세부터 44세까지입니다. 이들은 월, 수, 금요일에 교대 근무를 하고 주중에 열다섯 시간 정도 일을 하지요.

포항시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2층의 16.3평을 무상으로 제공한 이곳에서는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된 정신장애인들이 주인공이란다. 이들 장애인은 한동대학교 커피 교육 담당 팀에게서 12주부터 16주까지 교육을 이수한 바리스타들이란다. 바리스타(Barista), 이탈리아어로 즉석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한다. 가게 문을 열면 히즈빈스의 직원들이 하는 일은 날씨나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 맛을 동일하게 내기 위한 시음이라한다.

문형주 씨가 취재 기사를 티 테이블에 얹혀놓고 카운터로 간다. 문형주 씨는 잠시 뒤 리본 컵에 불을 켜다. 리본 컵은 2층 창가에 매달아놓은 네온사인이다. 이 네온사인에 불이 들어오면 손님들은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이곳 매니저가 언제 네온사인에 불을 켜지는 아무도 모른다. 옛장수 마음이 아니라 커피장수 마음이기 때문이다.

히즈빈스가 선물을 한 톱 시원하게 쓰지 않는 날은 휴무일인 월요일뿐이다. 평일에는 낮 10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낮 12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카페 매니저가 리본 컵에 불을 켜 것이다. (주)향기내는 사람들 산하 운영기관인 카페 히즈빈스, 1호점은 한동대학교 3층 도서관 쪽에 있단다. 3호점은 올해 7월 어느 날 포항시청 지하 1층에서 오픈한다. 그런데 3호점 직원도 특색 있게 리본 컵에 불을 켜까. 3호점 직원도 커피 마시러 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날려 보낼까. 누가 하루 전에 나를 대신해 커피 값을 미리 계산해준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나도 누군가의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힐 즈음, 히즈빈스에 문이 열린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인가. 고마운 그 사람인가. 지금은 밤 9시 30분이다.



포항시립미술관<듀얼 이미지전>

“동시대 시각문화의 생생한 면모 확인”

전시기간 : 2011. 6. 23 - 8. 7

<듀얼 이미지>전은 동시대 시각문화 속의 이미지가 가지는 다층적인 겹을 ‘듀얼 이미지’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식과 시도의 현대미술의 양상을 가시화시키고, 현대미술의 본질적인 특성을 표출하고자 한 전시이고, 그런 면에서 듀얼 이미지는 말 그대로 두 겹의 층위를 가진 이미지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겹, 다층적인 층으로 구성된 현대미술의 특성을 지시하는 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겹쳐짐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동시대 시각문화의 상황들이 주조해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를테면 시각테크놀로지의 등장에 따른 이미지의 변형, 복제, 생성이 그 주된 이유라 할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복잡한 이미지의 상황과 대면하면서 이를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 한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들이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작가들의 노력은 이미지의 과잉 시대에, 진정한 이미지를 담아냄으로써 세상의 저 살아있는 생생함을 포착하고 살리려는 시도들인 동시에, 가시적인 것 너머의 비가시적인 것을 담 아내기 위한 노력들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번 전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의 이미지 상황들을 드러내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복수의 이미지들이 결합된 양상들, 혹은 여러 겹의 층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이미지의 상황들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동시대 시각문화의 생생한 면모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주로 사진과 회화 작품을 통해 이러한 다채로운 양상들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이를 통해 동시대 시각예술이 가진 다기한 형태의 이미지 변형, 생성은 물론 그 이면에 자리하는 여러 속내들을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여름 시즌의 미술관의 계절적, 장소적 맥락을 고려하여 여름, 바다, 풍경, 여행 이미지와 연동된 작품을 통해, 공공미술관으로서 시민들과 원

활한 소통 역시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3, 4 전시실에는 동시대 미디어 아트에 나타난 각기 다른 ‘시간’의 의미를 반추해볼 수 있는 <시간의 창>전을 마련하여,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의해 변주된 다채로운 시간에 대한 경험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 1 이명호_Sea #2_ink on paper 140x308cm_2010
- 2 김동유_Marilyn Monroe (John F. Kennedy) oil on canvas_194x155x4.5cm_2010
- 3 이정_You(ed,15)_c-type print 170x136cm_2010
- 4 이혁준_Forest_Eden19-1 varnishing on collage 198x352cm_2010 (8866 12 pieces)

제14회 포항 세오녀 문화제



제16회 여성주간 브랜드 행사로 열리는 포항시 여성 문화축제인 <제14회 포항 세오녀 문화제>가 함께 나누는 여성친화도시, Smart 포항' 이라는 슬로건 아래 7월 1일부터 7일까지 8일간 포항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축제로 추진된다. 주요 행사로는 '포항시여성대회'가 6일 오전 10시부터 포항문화예

술회관에서 포항시여성상 시상, 여성발전 유공자 포상, 친환경 녹색실천결의대회(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서명운동)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비롯해 이 기간 동안 글로벌시대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특강, 지역 여성예술인 작품전시회, 독서능력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여성주간기념 '작은 영화제', 여성국악 한마당 및 천연염색옷 패션쇼 등의 행사가 열리게 된다. [문의 : 시청 여성가족과 270-3012~3014]

공연소식

▶▶ 시립교향악단 · 합창단 합동 정기연주회

- 일시 : 2011. 7. 7(목) 19:3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내용 : 헨델의 대관식 송가 등

▶▶ 불빛 축제 특별 공연

- 일시 : 2011. 7. 23(토) 20:00
- 장소 : 형산체육공원
- 출연 : 시립합창단(지휘/공기태), 시립교향악단
- 내용 : 영화 수퍼맨 주제가, 벨라 판타지아 외 다수

▶▶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 일시 : 2011. 7. 13(수) 10:30
- 장소 : 포항제철 유치원
- 내용 : 모차르트의 작은 별 외 다수

▶▶ 국공립 연극단 페스티벌 참가공연

- 일자 : 2011. 7. 4(월)
- 장소 : 경주예술의 전당
- 출연 : 포항시립연극단(연출/김삼일)
- 내용 : 셰익스피어 작 <리어왕>

인문학 강좌 <문화시민을 위한 미술·건축이야기> 관심

포항시 평생교육프로그램 과정에 인문학 강좌가 개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6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도시디자인과 건축>, <역사문화와 신화적 상상력> 등 16강좌로 포항대학에서 위탁운영하는 이번 강좌는 새로운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포항시가 도시로서 현재적 상황에 주목하고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모색해보고자 연 강좌이다. 이번 강좌는 창조적 도시재생과 연관된 도시담론의 다양한 흐름을 살펴보고, 현대도시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과 국내의 도시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물론 현대도시의 구성에 있어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좌는 최근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어렵게만 여기는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민의 날, 5만 시민 참여로 대성황



포항 시민의 날 행사가 11일 5만 명의 시민과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포항시민의 날 행사는 해도공원에서 외국인주민 한마당 축제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행사, 축하행사로 펼쳐졌으며, 식후 행사로 미스 경북 선발대회가 열려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은 포항 시민의 날을 '영일만 친구DAY'로 선포하는 한편 시민상과 다문화가정, 포항을 빛낸 시민 등 분야별 시정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포항시 최고 인구인 519,557명 인구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송도동의 조창제 씨에게 포항축협과 새마을병원에서 한우 1세트와 금반지 1돈을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도 펼쳐졌다.

포항시, 경북도민체전 3연패 위업 달성



포항시가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해 도민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울진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포항시는 종합점수 206.5점을 기록해 시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포항시는 육상(필드), 마라톤, 레슬링, 유도, 사격, 골프, 보디빌딩 종목에서 1위에 올랐다.

포항시는 육상(트랙), 수영, 사이클, 복싱, 검도, 궁도, 배드민턴, 볼링, 롤러, 우수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해 종합점수 185.5점으로 2위에 오른 구미시와 161.9점인 3위 경산시를 따돌리고 도민체전 3연패의 성과를 거뒀다. 내년 제50회 도민체전은 구미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영일만대교 · 해저터널 · 인공섬 밑그림 나왔다

포항 영일만에 인공섬이 들어서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터널과 교량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5월 25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항-영덕 간 동해고속도로 노선 사전 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기관인 (주)유신 관계자가 포항을 우회하는 서측 노선과 영일만대교가 건설되는 동측 노선 등에 대한 설명을 펼친 후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항시가 영일만대교 노선이 지역경제활성화, 환경적인 측면의 우위, 포항의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내세워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동측노선 건설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동측 노선은 총 연장이 48km이지만 이 노선의 핵심 사업인 영일만항단 해상 구간은 9km.

동해면에서 포스코4투기장까지 4.7km는 해저터널로, 포스코 4투기장~여남동까지는 3.8km 해상교량으로 건설된다. 또 해저터널과 해상교량 연결지점인 포스코4투기장 인근에 24만3,000㎡ 규모의 인공섬이 들어서 휴게소 용도로 쓰인다.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성황리에 폐막



2011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6일 러시아의 TIBURON과 우리나라의 DNA가 외양구간 경기에서 우승을 따내며 막을 내렸다.

포항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요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11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지난 1일 북부해수욕장에서 영일만 인쇼어레이스를 시작으로 포항에서 울릉도·독도,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는 외양구간 경기를 마치고 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국제요트대회는 총 9개국 6척 330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2일부터 열린 포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오는 540여 km의 외양구간 경기는 한국 및 러시아 등 5개국 28척 240여 명이 참가해 ORC 종목에서는 러시아의 TIBURON(Boat Name)이, OPEN 종목에서는 우리나라의 DNA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2011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독도와 동해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에 독도와 동해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포항에 해외부품소재 기업 투자방문 봇물

포항에 해외 부품소재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하루동안 포항에는 일본의 조해공업주식회사, 독일의 스트롱필드 테크놀로지 그룹 등 부품소재기업 등 20개사의 해외기업들이 방문, 영일만항과 부품소재단지 포항나노집적센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포항의 투자여건을 살펴본 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일본기업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가 없는 지역을 찾아 포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기업유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돌았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투자설명회에서 포항은 부품소재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어느 도시보다도 일본과 가깝고 포스텍,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우수한 첨단과학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후방지원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현대식 송도활어위판장, 25일 첫 위판 시작



동해안 최대의 항구이자 수산물 소비지인 포항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활어위판장이 5월 25일 문을 열었다. 새롭게 이전하는 송도활어위판장 시설은 현대식 구조와 위생적인 시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송도활어위판장은 활어의 역동성과 위판장의 생동감을 리듬감 있게 표현하고 파도의 물방울을 형상화 디자인한 포항시의 테라노바 건축물로서 포항의 새로운 볼거리로 등장했다.

위판장 시설은 포항시의 보조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원이 투입됐으며, 2009년 12월 포항시에서 전국 설계를 거쳐 당선돼 2010년 9월에 착공했다. 연면적 2,998㎡로 1층은 위판시설, 2층은 어업인 휴게실 및 조망시설, 3층은 어업인 및 수산물 유통사업자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영일만항 현장체험, 초등학생 견학 줄이어~



영일만항의 역사를 배우고 항만 시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포항 영일만항 현장체

험에 초등학생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철지곡초등학교 학생 24명은 영일만항 홍보관을 방문해 영일만항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항만의 역할, 항만물류의 흐름에 대해 학습했다.

이와 함께 홍보관 내에서 항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일만항 모형을 둘러본 뒤 영일만항의 하역작업 현황, 수출입 무역의 흐름을 영상을 통해 간접 체험했다. 이어 차량에 탑승해 컨테이너 부두 시설과 각종 하역장비를 둘러보고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여름 더위,

포항 해변에서 날려보

북부·월포해수욕장 6월 15일부터 임시 개장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초여름이지만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 갇힌 사람들이 벌써부터 허허댄다. 그래서인지 바닷가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북부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을 6월 15일부터 서둘러 임시 개장했다. 다른 해수욕장은 각종 안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막바지 개장 준비에 맘을 흘리고 있다.

북부를 비롯한 구룡포·도구·칠포·월포·화진 등 지정 해수욕장 6개소는 7월 2일 정식 개장하여 8월 28일까지 58일간 운영된다. 개장일에는 북부해수욕장 일원에서 아쿠아에슬론(수영 1.5km & 달리기 10 km)대회와 핀수영(바다 2.5 km)대회 등 다양한 축하행사가 열린다.

아쿠아에슬론과 핀수영 대회는 테마가 있는 거리로 새롭게 단장한 북부해수욕장과 동빈내항을 연결하는 산책코스를, 그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열리게 된다.

특히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올해에도 표준협정요금을 설정, 요금표를 붙이도록 했다. 무엇보다 인명사고 제로(Zero)를 위해 포항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 북부해수욕장의 변경된 명칭에 대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북부해수욕장은 지난 2006년부터 전통성과 역사성, 상징성 없이 단순 방향을 나타내는〈북부〉로 붙여진 이후 지속적인 명칭 변경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제175회 임시회 주요 의정 활동



지난 5월 18일 개최한 제17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13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30일 폐회했다. 포항시의회(의장 이상구)는 5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051,500백만 원보다 92,350백만 원(8.8%) 증가한 1,143,850백만 원으로 편성된 포항시 2011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 불요불급 예산 삭감하여 철강공단도로 보수 5억 증액 등

세입예산안은 원안이결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65백만 원을 삭감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원 등 6억 원을 사업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15백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4백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 2011년 시정전반 행정감사계획 의결 및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지원 결의안 채택

이어 6월 21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전 시민의 염원을 담은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포항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 구제역 및 폭설 피해자 시세 감면동의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한편 김일만 의원은 포항시의 기업과 인구관리 정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포항시의회 제176회 제차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개최한다.

서울 강서구의회, 포항시의회를 방문하다



5월을 맞아 포항시의회(의장 이상구)에 타시군의회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충남 당진군의회 의원들의 방문에 이어 5월 26일 서울 강서구의회 이명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15명이 포항시의회를 방문했다.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선진의회로 앞장서고 있는 포항시의회의 운영방향과 의정활동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과 함께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 의회간의 상호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독도수호결의대회 개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의장)는 지난 5월16일 제185차 월례회를 울릉도에서 개최하고 다음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을 규탄, 독도 지키기에 앞장 서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상구 회장(포항시의회 의장)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울릉도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독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라나는 신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더욱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다.” 고 말했다.

▶▶ **시정인지도 설문조사에 나도 참가!**

- 포항시 주요시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실시
- 설문기간 : 2011. 6. 17 ~ 7. 6(20일간)
- 설문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사이버설문
포항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창 클릭
(또는) 홈페이지-시민참여-사이버설문 클릭

▶▶ **2011 지방자치학교 수강생 모집**

- 자격요건 : 20세 이상 포항시민
- 모집인원 : 선착순 100명(수강료 2만원)
- 교육기간 : 2011. 8. 2 ~ 10. 27(매주 화, 목요일)
- 교육장소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2층
- 접 수 처 : 포항시의정회 249-3700

▶▶ **7월 시민정보화 교육(무료) 안내**

- 교육과정 : 트위터&블로그 외 8개 과정
- 교육대상 : 포항시민 누구나
- 신청기간 : 2011. 6. 27(월) 09:00부터 선착순
-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 방문 접수
- 문 의 처 : 270-5825(시청), 5823(남구), 5824(북구)

▶▶ **7월 시민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안내**

- 상담일시 : 2011. 7. 18(14:00~17:00)
- 상담장소 : 시청 지하 1층 법률상담실
- 상담대상 : 포항시민
- 상 담 관 : 변호사
- 문 의 처 : 270-2042

▶▶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 :
기기조작방법, 차로준수, 돌발시 급제동
- 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실격으로 강화
- 운전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줄이고 교육생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전문학원(운전면허+기능검정) 의무교육시간 25→8시간
일반학원(운전교육만 실시) 교육시간 자율화
- 문 의 처 : 포항북부경찰서 250-0352

▶▶ **〈사랑의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 교육과정 : 방학 특강반(7월 한달 과정)
- 모집기간 : 2011. 6. 30까지 신청
- 교육장소 : (사)경북농아인협회 포항시지부 교육실
- 문 의 처 : 274-0006, 9980

▶▶ **행복한 출산·육아 UCC 공모**

- 접수기간 : 2011. 7. 29까지
- 접 수 처 : 시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270-2991)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 상 금 : 최우수상(150만원) ~ 장려상(30만원)

▶▶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1. 6. 10 ~ 7. 10
- 대 상 :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 방 법 : 인터넷, 전화, 서면 신청
- 문 의 처 : 포항북부경찰서 250-0352

▶▶ **비군인 참전유공자를 찾습니다**

- 대 상 : 6·25전쟁에 참전한 비군인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군속, 징용노무자, 국민방위군 등
- 혜 택 : 참전 국가유공자 등록
- 문 의 처 : 국방부 02-748-5123, 5257

▶▶ **생활도로구역 지정 운영**

-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정정책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
- 대 상 : 남구 이동사거리 이동 E-마트 구간
- 문 의 처 : 포항남부경찰서 282-1360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수급대상자 :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74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18만4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상담
- 지 급 액 : 월 최고 91,200원(단독가구 기준)
- 신 청 방 법 :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 문 의 처 : 129보건복지 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유통식품 주민 청구제 실시

- 대 상 : 대형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 모든 식품
- 방 법 :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해 전화 및 방문 신고
- 문 의 처 :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240-7183~4

▶▶ 6·25전쟁 남북피해자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기간 : 2011년~2013년(3년간)
- 신 고 처 : 시청 자치행정과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문 의 처 : 경상북도 053-950-2054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비만원인 영양성분이 많고 적음을 적, 황, 녹색으로 표시
- 시행일시 : 고시 후 3월 29일부터 시행 중
- 대상식품 :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즉석식품 등
- 신호등 표시방법 : 3가지 중 선택 표기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안내

.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금까지는 700원씩 아파트 관리비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릴때마다 부담**하게 됩니다.

- 시행배경 | 많이 배출하는 사람과 적게 배출하는 사람간의 형평성 걸여
- 시행계획 | 2011년 11월부터(설치기간 2011.7~10월)
- 배출방법 |



교통카드 삽입
카드잔액 확인

장비에 교통카드를 넣는다(잔액이 천원 미만이면 안열림)



음식물투입

자동으로 투입구가 열리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투입구 닫음
(손으로)

다 버렸으면 뚜껑을 손으로 닫는다



무게계량
금액결제

내장된 저울로 버린양을 측정하여 자동으로 결제한다



카드 회수

결제가 끝나면 카드를 회수한다

poohang | 문의사항 | 청소과 (054) 270-3191~6

강해중 포항바다화석박물관장, 포항시 시민상 수상 영예



강해중(71·사진 가운데) 포항바다화석박물관장이 2011년 포항시 시민상을 수상했다. 강관장은 지난 19년간 세왕건설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점과 포항바다화석박물관을 설립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한 공적이 인정돼 올해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포항시는 2011년 시민의 날을 맞아 분야별 각자 영역에서 시정 발전에 공헌한 21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분야별 표창 대상자로는 경제분야 김낙삼 삼수건설 회장 등 14개 분야 14명, 포항을 빛낸 시민 배수연 포항시문화관광해설사 회장 등 4명, 모범다문화가정 기와하라미노리·김만표 부부 등 3쌍이다.

자유총연맹 전국 한미음화원대회 포항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2011 전국한미음화원대회가 15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전국회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독도 수호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수호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날 박승호 포항시장은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회장으로 부터 세계자유민주연맹회장이 주는 자유장을 수상했다.

공무원 가족자원봉사팀, 농촌일손돕기

여가시간을 활용한 1% 나눔봉사로 100% 감동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들의 릴레이 자원봉사활동이 올해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포항시공무원가족자원봉사팀 21명은 11일 감나무 열매 숙아내기 작업에 일손이 모자라서 애를 태우고 있는 청하면 유계리의 과수경작 농가를 찾아 적과(열매숙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원초등 진현재 군 환경골든벨 울려

장원초등학교 진현재 군이 제1회 환경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렸다. 진 군은 지난 4일 하수처리시설장에서 펼쳐진 환경골든벨 대회에서 마지막 정답인 동빈내항을 적어내며 최후의 1인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골든벨을 울린 진군에게는 장학금 50만 원이, 진군이 재학하고 있는 장원초등학교에는 학교 지원금 1백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환경사랑 그림, 포스터그리기대회는 22개 초등학교 400여 명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으며, 대상은 장량초등학교 김지나 학생이, 최우수상은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이주영, 장량초등학교 하현경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기탁자

- 일본 도쿄 거주 재일교포 안희수 씨 1000만 원
- 포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위원장 김진규) 200만 원
- 포항 북구 버스표판매상(대표 오기준) 30만 원
- 배용일 포항대학 교수 500만원
- 황명성 포항 경동라이온스 회장 200만 원
- 이경민 포항시체육회 상임교문 500만 원

빠리콜 포항시 민원콜센터
270-8282



미래의 기억 Memory of the Future | Single Channel Video | 2분 8초 | 2009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제작된 고전SF영화의 장면들과, 그 영화 속 장소와 동일하거나 흡사한 현재 일상의 풍경을 조합하였습니다. 이를테면, Things to come(1936), 흑성탈출(1968) 등과 같은 영화와, 뉴욕·양코르와트·한국의 풍경 등이 그것입니다. 이 작업에 사용된 고전SF영화들은 SF의 미래시제와 고전이라는 과거시제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 장면들을 통해 아득해져 버린 미래의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전필름의 낡고 빛바랜 질감 속에 나타나는 로봇이나 UFO와 같은 복고적 미래 풍경들은 향수의 역설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현재 일상의 장면들과 이어 붙여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가 충돌, 교차하는 풍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 맞물려 제각각 돌아가는 현재, 과거를 내포한 미래의 파편들은 무심히 순환하는 시간의 사이클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용석 개인전은 2005년 새로운 작가 : 드라마, 대안공간 풀(서울), 2010년 클래식, 16번지(서울)전으로 총2회와 2006년 상하이비엔날레, 상하이미술관(상하이, 중국)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8년 YOUiverse, 세비아비엔날레(세비아, 스페인), 메타모르포시스 에스파스 루이비통(파리, 프랑스) 2009년 감각의 뿔타주(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2011년 SEMA,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등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High 5

더 많은 성장



Happy 5

더 나은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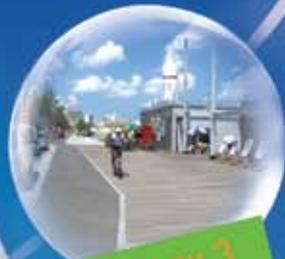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



Happy 1
풍성한 문화



Happy 2
따뜻한 복지



Happy 3
쾌적한 환경



Happy 5
더 많은 일자리



Happy 4
열린교육